

##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4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위해 수고하시고 자리를 만들어 주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홍식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님, 안용민 중앙자살예방센터장님, 그리고 정부와 함께 자살예방이라는 큰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참여해 주신 종단 수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 동안 자살예방 입법 활동에 진력해 오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님과 문정림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념식은 우리 사회에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도 오늘 이 기념식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자살예방 협약을 맺어 정부와 함께 생명존중문화 조성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을 유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가 잘 아시는 일입니다. 정부도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막기 위한 정책과, 유가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여러 차원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살문제는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 종교계는 복지부와 손을 잡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사회적인 생명존중문화 조성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자살예방을 위한 크고 작은 뜻이 모여 우리나라에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되길 소망하면서 격려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1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